



PCT 使用者會議 召集

—10月 5日 제네바서—

WIPO(世界知的所有權機構) 事務總長은 오는 10월 5日 제네바의 WIPO本部에서 PCT(特許協力條約) 使用者會議를 召集한다고 發表했다.

PCT制度를 利用하는 사람들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들을 討議하기 爲기 마련되는 이 會議에서는 1) 國際出願過程의 當面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共通된 各種問題들이 다루어지며 2) 국제출원과정에서 發生한 가장 共通된 試行錯誤를 把握, 이의 是正方案이 討의될 것이다.

따라서 PCT自體를 改正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PCT節次上에 나타나는 矛盾된 點들을 示正하기 爲한 새로운 方案이 摸索될 豫定이다.

이 회의에서는 數名의 演士가 다음 主題에 의한 講演이 英語, 佛語 및 獨語로 開陳된다.

- 1) 國際出願
- 2) 國際出願說明, 請求範圍 및 抄錄作成; 改正案
- 3) 代理
- 4) 手數料, 經費, 時限
- 5) 國際調查
- 6) 國際豫備審査
- 7) PCT刊行物
- 8) 國家次元으로의 進入

AIPPI토론토總會 開催

—韓國서 代表 5人參席—

國際工業所有權保護協會(AIPPI) 總會가 9月 20日 부터 29日까지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開催된다.

韓國에서는 李允模, 田峻恒, 張龍植, 金明信, 愼重勛 등 5名의 辨理士가 이 會議에 參席하는데 이번 會議에서는 同協會機構改編을 비롯하여 議題로서 特

許請求範圍翻譯問題, EPC의 商標制度, 파리協約改正案, 特許權侵害에 대한 辦償金算定問題등을 討議하게 된다.

藥價表示와 使用法明示義務化

—美, 5年만에 上院勞社委通過—

美上院勞動社會問題委員會는 5年동안이나 끌어온 藥事法改正案을 解決하여 上院本會議에 廻附하였다.

同法の 改正骨子は 低價格醫藥品과 醫藥新製品的의 商品化促進등에 主眼을 두고 있으며 이에따라 製藥會社는 醫師나 藥房에 대해서 10弗 以上の 贈與를 禁止당하게 된다. 또한 약방은 가장 많이 쓰이는 處方藥 50種에 대하여 藥價를 表示하고 各處方藥에는 大衆이 알기쉬운 말로 그 使用法과 危險性을 指摘한 說明書를 提示할 義務를 지우게 되었다.

또한 救急用醫藥品의 販賣促進措施도 改正法에 反映하였는데 이번 개정은 大幅의인 것이다.

에너지關聯技術優先審査

—日 特許廳, 來년부터 施行—

日本特許廳은 에너지關聯技術의 特許出願에 重點優先審査制度를 採擇키로 決定하였다.

에너지관련기술의 研究開發體制強化를 特許行政面에서 支援하려는 措施로 보이는 이 제도는 來년부터 施行할 豫定이며 이미 그 對象技術分野를 選定하기 시작하였다는 消息이다.

이 중점심사제도는 출원의 順位에 關係없이 他出願에 先行審査하는 것이며 현재도 公害防止技術이나 出願公開된 發明中 擊爭對象의 출원은 中점심사를 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술의 특허출원중점심사는 審査請求가 있을때에 局限되며 기술의 限界는 出願時에 에너지관련발명이란 점을 미리 記載하게끔 誘導하여



그대로 公開公報에 明示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사청구는 第3者도 할수 있으나 그 대상한계가 아직 問題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節約型機器 즉 節電에서 TV分野까지 모두 대상으로 하느냐등 그 한계를 規定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戰鬪機의 自動化競爭

—性能向上을 위해 熾烈—

航空機의 發明特許出願이 世界的으로 激増하는 傾向이며 戰鬪機의 自動化와 運動性能의 向上을 위해서 各國이 熾烈한 競爭을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日本航空自衛隊도 支援戰鬪機 F-1 用의 自動操縱裝置를 開發하고 있는데 이는 컴퓨터를 利用한 高度와 速度등을 自動制御함으로써 操縱士의 負擔輕減 및 地上 또는 海面飛行에 보다 妥全을 企圖하려는데에 目的을 두고 있다.

지난 6月 9일부터 17日사이에 파리에서 열린 第33回 파리航空쇼에도 플라이 바이 와이어操縱裝置를 使用함으로써 運動性이 強化된 新機種이 展示되었다.

또한 小型컴퓨터를 이용한 自動化電子機器, 裝備品도 出展되었는데 이것이 國際的인 趨勢이다.

PIPA 10月總會 開催

—韓國特許制度動向도 報告—

太平洋地域工業所有權協會(PIPA)는 79年度總會를 10月 24일부터 26日까지 美國의 필라델피아에서 開催한다.

이번總會 議題는 來年 2월에 열리는 工業所有權保護에 관한 파리協約外交官會議에 對處하려는 準備會議이 될것이다.

또한 이 총회에는 日本側으로부터 그들 나름대로의 韓國特許制度의 動向 報告할 豫定이다.

蘇서 工業所有權法改正

—來年2月 파리會議에 迎合하러—

外信이 傳하는바 蘇聯은 來年 2월에 열리는 工業所有權保護에 관한 파리協約外交官會議에 앞서 特許法을 大幅改正함으로써 그들의 自衛手段을 講究하려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國際特許制度趨勢에 迎合하려는 氣色이 歷歷하며 특히 物質特許의 對象을 擴大하고 發明者證의 存續期間 設定, 發明자증에 대한 異議申請制 採擇등이 包含되었다.

특히 소련으로서 자유陣營과의 技術交流를 위해서도 法改正을 서두는 것이 有利하다는 判斷아래 서둘러서 것이며 소련의 법개정은 蘇聯法을 母法으로 法體系를 定立시키고 있는 東歐共產國諸國의 법개정에도 直時 影響을 미치게 될것이다.

共產主義諸國의 現行 工業所有權法體系는 自由陣營國法體系와 判異하여 國家가 實施權限을 獨占하는 發明者證制度가 工業所有權制度의 核心이 되어있으며 特許制度는 자유진영국가와의 技術교류를 위한 수단으로 設定한데 不過하였다.

이번 개정법에는 위에서 指摘한 原則外에도 外國機關과 蘇聯機關이 共同研究한 경우의 發明은 兩側의 共有特許權으로 賦與하고 이제까지 發明者證만이 부여되던 化粧品, 食品, 香料에서도 특허권을 取得할수 있게되어 있다.

또한 發明자증의 存속기간은 출원부터 15년으로 설정했고 存속기간이 滿了된후에도 第3者가 實施하려면 政府의 許可를 얻어 使用하되 技術料를 支拂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진영의 獨占權許與精神과 根本的으로 背馳되는 점이다.

發明자증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出願日부터 3年以內로 하고 있으나 역시 자유진영과 差異가 있다.